

겨울철 재난 관리부실 여전

행안부, 17개 시·도 합동 감찰결과 발표...351건 위반 확인 사전대비 부적정 122건 '최다'...점검 소홀·비상대응 미흡도

겨울철 재난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여전한 안전 불감증을 드러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개월 간 전국 17개 시·도 합동으로 감찰을 벌여 351건의 안전관리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공단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 173곳과 사업장 91곳(고시원 80곳·공사장 7곳·관광유원지 4곳)을 대상

으로 실시했다. 감찰 결과 사전대비 부적정 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사전조사 부적정이 63건, 종합계획 미수립이 59건이었다.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사례는 95건(안전점검 부적정 36건, 시설유지관리 부적정 59건)이었고 비상대응 태세가 엉터리였던 경우도 59건(계획수립 미흡 19건, 비상근무 부적정 40건)이나 됐다.

지역축제 운영 지침과 달리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현장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이 허술한 사례로는 28건(안전계획 미수립 20건, 안전관리 미흡 8건) 적발됐다.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제설·제빙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거나 도로 결빙시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소방방재시설의 고장·불량 상태를 방지하는 등 기타로 분류된 사례만도 47건 있다.

행안부는 전체 351건중 직접 적발한 88건에 대해 시정할 것을 통보

했다. 시·도가 색출해 낸 263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감찰 사례를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전파하도록 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 재난관리 전 단계에서 부실 사례가 확인됐는데 대체로 재난안전 대책기간 초기에만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점검과 비상대응 태세 유지를 소홀히 했다"며 "이번에 적발된 부실 관리 행위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대책 마련과 함께 지속적으로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佛무슬림, 페이스북·유튜브 고발

프랑스의 대표적인 이슬람 단체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고소했다고 25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지난 15일 뉴질랜드의 이슬람 사원에서 벌어진 총격 테러 사건을 생중계했다는 혐의다.

프랑스무슬림평의회(CFCM)는 50여명이 숨진 모습이 담긴 테러 동영상과 관련해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백인우월주의자가 이슬람 사원 2곳에서 테러를 벌여 50여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테러범은 헬멧에 카메라를 부착해 17분에 이르는 테러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CFCM의 압둘라 제크리 회장은 "페이스북이 동영상을 빠르게 삭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은 자신의 플랫폼에서 증오와 혐오의 메시지가 표현된 만큼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크리 회장은 테러범의 영상이 1시간이 조금 넘게 페이스북에 게시되어 있었으며 수백만의 다운로드, 다른 웹사이트로의 재게시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테러) 영상을 그저 총 쏘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다"며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앞으로 이같은 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CFCM은 파리 검찰 측에 "테러를 부추기는 폭력적인 콘텐츠와 메시지를 방송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 또 미성년자에게 쉽게 노출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이는 최대 징역 3년 및 7만5000유로(약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또 다시 대규모 정전 사태

베네수엘라에서 또 다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고 AP, AFP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정전 사태는 25일 오후 1시28분께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 사부 여러 주에서 동시에 발생했다.

휴대폰 신호가 끊겼으며 TV는 나오지 않았다. 삼점 주인들은 약탈에 대비해 상점 문을 닫았으며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외곽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도 전기가 끊겨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카라카스에서는 정전으로 지하철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도보로 이동해야 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정전 발생의 원인은 아편에 있다고 밝혔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통신장관은 25일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베네수엘라 전체 전력의 80%를 책임지는 구리 수력 발전소에 대한 공격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통신장관은 "아편이 베네수엘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훼손된 전기 시스템을 복원하는데 5~6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선출한 후안 가이도 국회의장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가이도 국회의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마두로 정권이 이 순간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흘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불안을 조성하려고 한다"며 비판을 가했다.

이어 가이도 국회의장은 "정전 사태로 23개 주 중 최소 17개 주 및 카라카스의 상당수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사우디 공습으로 예멘 후티반군 50명 피살

예멘 동부 마리브 주에서 2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공군의 공습으로 최소 50명의 후티 반군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예멘 정부가 국영 뉴스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공습은 현재 후티 반군의 지배하에 남아있는 마리브 동쪽의 유일한 지역인 세르와 지구 내 리비아 골짜기의 반군부대를 목표로 수행된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마리브를 제외한 풍부한 유전지대는 대부분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정부 쪽으로 넘어갔다.

이전 후티반군 측에서는 이번 공습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지난 해 12월 스톡홀름에서 예멘정부와 후티 반군 사이에 맺은 휴해 항구도시 호페이데에서 철수하기로 한 평화협정은 양측 군대가 모두 시내에서 철수하는 데 실패하는 바람에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이에 2015년부터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이 공습에 나섰다.

학교 인사철 꽃 선물 관행 놓고 청렴 논란

신학기와 교원 인사철 꽃 선물 관행을 놓고 '청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 당국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며 청렴도 금지 방침을 수년째 유지하자 화제언자들이 "꽃은 문화이지 뇌물이 아니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한국화원협회와 광주화훼유통 협동조합, 광주남도매인연합회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화훼 인협회의는 26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화분 등 수수 금지 공문을 완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꽃은 문화이고 엄연한 농산물이지 뇌물이나 사치품이 아니며, 청렴도를 핑계로 화분 수수를 금지시키고 인사 불이익을 운운하는 것은 무시인일한 행정이고 영세 소상공인들을 말살시키는 조치"라며 "승진과 전보 등 인사철에 화분 수수를 금지하거나 반려토록 한 공문을 즉각 수정 또는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가 소상공인과 화훼 농가를 배려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수정, 선물 및 경조사 화환 등의 가격기준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강압적 공문을 하달했다"며 "공문 철회나 수정이 없을 경우 전국 화훼단체와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관행적인 금품 수수를 금지시켰을 뿐 특정 불평민을 뇌물로 보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조인호 기자



봄 맞아 같이엮는 땅 원만한 봄 날씨가 이어진 26일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관계자들이 초지에 퇴비를 살포하기 위해 땅을 같이엮고 있다.

조선대 교수, 아들 석·박사 강의-논문심사 논란

광주의 한 대학원에 재학중인 직장인 아들이 아버지 교수 수업을 수차례 수강하고 높은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조선대에 따르면 박사학위 취득자인 A씨의 경우 수년 간의 석·박사 과정을 거쳐 지난해 2월 공학박사 학위를 정식 취득했다.

직장인인 A씨는 이 과정에서 석사과정 2과목, 박사과정 1과목 등 모두 3과목을 진수해 이자 해당 대학 소속인 B교수로부터 강의료를 받은 뒤 모두 A학점 이상의 고학점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공·사립고를 중심으로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가 도입됐거나 적금 검토중인 가운데 상당수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대학원생이 '부친수업'을 수차례 받은 것이어서 위법성 여부를 떠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올해 초 국내 모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학생이 아버지교수 수업을 수강했다가 학생들의 집단 반발로 휴학조치되는 등 상피제는 교육계의 불문율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여서 더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B교수는 뿐 아니라 2017년 12월 아들의 박사학위 논문심사에도 위원으로 참여해 인준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주변에서는 "B교수가 낮은 학점을 준 일부 교수에게 전화해 학점 상향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는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A씨와 B교수의 특수관계는 최근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게재된 익명을 진정서를 통해 외부로 알려졌다. 교육부로부터 진상 조사 후 보고하라는 공문이 대학 측에 통보되면서

조선대 진상조사단까지 꾸려졌다.

진상조사단 한 관계자는 "지난 22일 1차 회의가 있었고 B교수에게 '1주일 안에 지면 또는 직접 출석 소명할 것'을 요구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B교수는 이에 대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대학교 상피제나 수업 회피제 같은 것은 없었고 학내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았는데 올해 초 교육부에서 '자녀 수업 출강 금지' 등에 대한 공문을 보내오면서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강의 수료이나 논문심사 요청에 '부적절하지 않겠냐고 거부 의사도 밝혔지만 전문성 등을 고려해 말아 달라는 부탁이 이어져 강단에 서고 심사에 참여했던 것이고 직장인 대상 주말 보강수업도 넉넉히 했는데 돌이켜 보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찍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해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1577-1000